02

현대중공업그룹 웹진 매거진 H

NO.047

INSIDE

Feature	‘오늘을 통해 내일을 보다’ - 2022년 우리 그룹은	**03**
People	중동의 밤을 더 환하게 밝히다 - 현대일렉트릭 전력해외영업1부	**09**
News	그룹사 주요 소식	**12**
Heritage	현대중공업 PPS(이동식 발전설비) 쿠바 첫 출하 - 2006.2	**16**
Special	미래 인재와 함께 그려본 우리 그룹의 ESG경영	**18**

웹진 내 아이콘을 클릭하시면
더 보기 더 많은 정보를 접하실 수 있습니다.

이달의 풍경 그 시절 1957년 | 40.7 x 60.9cm
그림 그랜마 모지스 1860~1961년 | 늦은 나이에 활동을 시작, 계절이 담긴 풍경화로 사랑받은 미국의 국민화가

STORY

Trend	토종 OTT들의 반격… 볼거리 더 풍성해지는 안방극장	**23**
Health	영양제, 어떻게 먹어야 하나요?	**26**
Culture	요알못들을 위해 K사우가 간다! - 체리브라우니 편	**28**
Story +	사우의 글 - 내 인생의 동반자	**30**
	잡학사전 - 함께 하면 행복이 배가 되는 ‘동반자’ 이야기	**31**
Hstagram	나의 짝꿍을 소개합니다	**32**
Quiz	2월호 퀴즈	**33**

INSIDE

Feature

People

News

Heritage

Special

‘오늘을 통해 내일을 보다’

2022년 우리 그룹은

글 웹진편집실

지난 1월 우리 그룹은 미국 라스베이거스에서 열린 세계 최대 전자·IT 전시회 CES(Consumer Electronics Show)에 처음으로 참가, 그룹의 미래 비전과 기술 로드맵을 제시하며 활기차게 새해의 포문을 열었다. CES 기간 동안 미국 팔란티어 테크놀로지스(Palantir Technologies), 미국선급협회(ABS)와 양해각서를 체결하는 등 미래 사업에 대한 기대감을 높이기도 했다. 반가운 수주 소식도 잇따라 들려왔다. 한국조선해양은 1월 4일 올해 첫 수주에 이어 지난 2월 9일까지 선박 총 36척을 수주하며 기분 좋게 한 해의 시작을 알렸다.

올해는 우리 그룹이 창사 50주년을 맞는 뜻깊은 해인 만큼, 50주년 기념행사부터 신제품 출시, 신기술 개발, 글로벌 R&D센터 준공까지 다채로운 이벤트들이 준비되어 있다. 이제 막 시작된 2022년 임인년은 우리에게 어떤 한 해가 될까. 오늘을 보면 내일을 알 수 있다는 말처럼, 이번 2월호에서는 그룹사들의 올 한 해 계획을 통해 우리의 미래는 어떠한 모습일지를 미리 살펴보고자 한다.

HYUNDAI HEAVY INDUSTRIES GROUP

▲지난해 6월, 아비커스의 완전 자율운항 시연회 모습

조선해양 부문, 자율운항·친환경 기술로 시장 선도

한국조선해양 등 조선부문 그룹사들은 올해 자율운항과 친환경 기술 개발로 글로벌 시장에서 선도적 입지를 공고히 할 계획이다.

특히 기대를 모으는 이벤트는 아비커스의 세계 최초 무인 선박 대양횡단 도전이다. 아비커스는 지난 2020년 선박 자율운항 시스템의 고도화와 전문성을 위해 우리 그룹 사내 벤처 1호로 출범한 선박 자율운항 전문회사다. 지난해 6월 길이 10㎞의 포항 운하에서 12인승 크루즈로 완전 자율운항에 성공한 바 있다. 항해보조시스템 하이나스(HiNAS)와 이·접안지원시스템 하이바스(HiBAS) 등 최첨단 기술을 이용해 선박의 출항부터 운항, 귀항, 접안까지 사람의 개입 없이 운항했다. 국제해사기구(IMO)는 현재 자율운항 기술을 원격제어 및 선원 승선 여부에 따라 1~4단계로 구분하고 있는데, 아비커스가 보유한 기술은 선원의 개입 없이 자율운항 시스템이 자율적으로 판단하고 조치하는 4단계에 해당한다. 아비커스는 올해 이 기술을 대형 선박에 적용해 대양 횡단에 도전하겠다는 계획이다. 글로벌 시장조사업체인 어큐트마켓리포츠에 따르면 자율운항 선박 및 관련 기자재 시장은 연평균 12.6%씩 성장해 2028년에는 2,357억 달러 규모에 이를 것으로 전망된다. 이번 도전이 성공한다면 우리 그룹은 자율운항 선박 및 기자재 시장에서 강력한 존재감을 드러내게 될 것이다.

현대중공업은 친환경 기술 개발로 친환경 선박 시장에서 입지를 더욱 넓혀 나간다. 먼저 오는 7월에는 친환경 보조추진 기술 중 하나인 풍력보조 추진장치(Rotor Sail)의 육상 실증모델을 설치한다. 이 장치는 일종의 돛이다. 20세기 이전의 선박은 돛을 활용, 풍력을 동력원으로 삼아 운항했으나 엔진기술이 발전하고 선박이 대형화되면서 돛은 자연스럽게 그 모습을 감추게 되었다. 그러나 최근 친환경 바람을 타고 돛의 재해석이 이루어지고 있다. 바로 돛에 첨단 기술을 적용, 보조 추진장치로 재탄생시킨 것이다. 이 장치를 선박에 탑재하면 연료의 소비를 줄일 수 있어 비용절감은 물론, 탄소배출량 역시 대폭 저감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CES 2022에 전시된 풍력보조 추진장치가 탑재된 선박 모형

9월에는 세계 최초 메탄올 추진 초대형 컨테이너운반선의 착공에 들어간다. 이 선박은 지난해 8월 세계 최대 해운사 머스크(Maersk)로부터 수주한 1만 6,000TEU급 컨테이너선 8척 중 첫 번째 선박이다. 메탄올은 기존 선박유에 비해 황산화물(SOx) 99%, 질소산화물(NOx) 80%, 온실가스를 25%까지 줄일 수 있는 친환경 연료다. 상온에서 액체 상태로 저장·이송할 수 있어 취급이 쉽고 바다에 배출되더라도 자연 분해되기 때문에 해양 오염을 일으키지 않는다.

현대미포조선도 친환경 기술 개발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현대미포조선은 메탄올 추진 자동차운반선(PCTC)의 설계 기본승인 획득을 추진하고 있다. 올해 10월에는 ICT융합 전기추진 여객선을 인도한다. 이 선박은 미래 조선산업 발전을 위해 울산시가 산업통상자원부, 한국산업기술진흥원과 함께 추진 중인 'ICT 융합 스마트 전기추진 선박 건조 및 실증사업'의 일환이다. ▲직류 그리드(DC Grid) 기반 전기추진시스템 ▲이중연료 엔진 ▲지능형 통합제어시스템 ▲원격관제 스마트 솔루션 등 국내 최초로 4가지 핵심 ICT융합 기술이 적용되는 친환경 스마트 선박으로 건조된다. 이 사업을 통해 현대미포조선은 친환경 스마트 선박시장에 새로운 이정표를 찍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현대삼호중공업은 초대형 선박 인도로 자체 기록을 경신한다. 먼저 올해 8월에 현대삼호중공업 역사상 최대 규모 프로젝트인 크누센 LNG 프로젝트의 첫 호선을 인도한다. 이 선박은 지난 2019년 노르웨이 크누센으로부터 수주한 17만 4,000입방미터급 초대형 친환경 LNG운반선으로, 현대삼호중공업은 동 선주사로부터 총 9척, 17억 달러 규모의 선박을 수주한 바 있다. 하반기 중 그리스 에발란드 쉬핑(Evalend Shipping)사로부터 수주한 LPG운반선의 인도도 이

뤄진다. 이 선박은 현대삼호중공업이 현재까지 건조한 LPG 운반선 중 가장 큰 9만 1,000입방미터 규모다.

현대글로벌서비스는 올해 상반기 중 기술서비스 전문 자회사를 설립한다. 기술용역서비스 사업을 확대하고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해서 영업 활동도 강화한다. 노르쉬핑(Nor-Shipping), 포시도니아(Posidonia) 등 국제 조선해양전시회에 참가하여 스크러버 등 탈탄소화 제품과 솔루션을 홍보하는 한편, IMO 환경 규제 만족이 어려운 노후 LNG 선박 대상으로 LNGC-FSRU 개조사업 입찰 참여도 추진한다. 전기추진제어시스템 국산화에도 나서는데, 올해 안에 개발을 완료해 국내 유일의 관련기술 보유업체로서 시장을 선도하겠다는 목표다. 향후 환경 규제 강화로 연안선의 전기추진화가 가속화될 것으로 보여, 개발이 완료되면 이 분야에서 시장지배력을 강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에너지 부문, 신사업·신기술로 시장 공략

에너지 부문 그룹사들은 신사업 진출과 신기술 개발로 수익구조를 다변화하고 시장 저변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현대오일뱅크의 HPC가 4월부터 상업 가동에 들어간다. HPC는 탈황중질유와 납사, LPG, 부생가스 등을 원료로 폴리에틸렌, 폴리프로필렌 등 석유화학 제품을 생산하는 올레핀[1] 설비다. 아시아권에서 탈황중질유를 원료로 투입할 수 있는 올레핀 설비는 현대오일뱅크의 HPC가 유일한데, 시황에 따라 원료의 투입 비율을 조절할 수 있어 최고의 경제성을 확보할 수 있다는 것이 특징이다. 현대오일뱅크는 향후 태양광 패널 제작에 쓰이는 EVA, 2차전지 분리막 소재인 초고밀도 폴리에틸렌, 접착제 소재 등으로 사용할 수 있는 친환경 합성수지 등으로 제품군을 다양화할 계획이다. HPC 상업가동은 현대오일뱅크의 정유사업 매출 비중을 2030년까지 45%로 낮추는 동시에 친환경 미래사업의 영업이익 비중을 높이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

현대오일뱅크는 올해 기업공개(IPO)도 추진하고 있다. 현재 상장예비심사가 진행 중이며, 그동안 기울여 왔던 수익 다변화 노력, 친환경 신규 사업 등을 바탕으로 시장에서 적정 가치를 인정받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또한 블루수소, 화이트바이오, 친환경소재, 탄소 포집 및 활용(Carbon Capture Utilization, CCU) 등 미래 사업을 단계적으로 추진해 현대오일뱅크의 기업 가치를 높여나갈 계획이다.

▲현대오일뱅크 대산공장 전경

현대일렉트릭은 2월 DP 선박용 지능형 보호시스템 국산화에 성공했다. 'DP(Dynamic Positioning, 동적위치제어)'란 해상에서 선박의 위치를 자동으로 유지하거나 미리 설정된 항로를 따라 안전한 운항이 가능하도록 도와주는 장치다. '지능형 보호시스템'은 DP 선박의 전력계통 내 사고 발생 시 고장구간만을 신속하게 차단 분리하여 동적위치제어 성능이 유지되도록 돕는 기술로, 그동안은 주로 글로벌 선진기업의 솔루션이 적용돼 왔다. 현대일렉트릭은 지난 1년간 한국조선해양, 현대중공업과 협력한 끝에 IEC 61850[2]통신을 이용한 지능형 보호시스템의 국산화 개발에 성공, 세계시장 진출을 위한 교두보를 마련했다.

이어 3월에는 국내 최초로 한국전력공사 3상 154kv 60MVA 가스변압기 개발을 앞두고 있다. 이 변압기는 기존 단상 가스변압기보다 설치 면적이 25% 감소되어 공간이 협소한 지하변전소에도 적용 가능한 것이 특징이다. 6월에는 우리 그룹 글로벌 R&D센터(GRC)에 구축될 직류(DC)전원 공급 및 수배전 설비의 시운전을 개시한다. 직류는 전력변환으로 인한 전력손실이 낮아 에너지 효율을 극대화할 수 있다. 또한 신재생에너지의 대부분이 직류로 생산돼 추가적인 변전이 불필요하다는 장점도 있다. GRC에는 단일 빌딩 기준 세계 최대 규모(1MW급)의 직류전력망이 구축될 예정이며, 이는 친환경 고효율 DC빌딩을 상용화하는 세계 최초의 사례이기도 하다. 현대일렉트릭은 GRC 프로젝트를 성공적으로 수행해 향후 잠재력이 높은 직류배전 시장에 본격 진입한다는 계획이다. 7월에는 부하 통합 예방진단 시스템 개발을 완료할 예정이다. 이 역시 국내 최초다. 이 시스템은 전력, 배전기기와 산업용 전동기를 일괄 모니터링하고 온라인 진단을 할 수 있는 시스템으로, 향후 대형 고객을 포함한 전력기기 사업 전반에 적용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

[1] 올레핀(olefin): 천연가스나 원유 정제 과정에서 생산되는 불포화 탄화수소. 플라스틱, 합성섬유, 합성고무의 소재로 쓰이며 '석유·화학 산업의 쌀'이라고 불린다.

[2] IEC 61850: 국제전기전자표준위원회(IEC)가 전력설비의 자동화를 위해 정한 통신 네트워크에 관한 국제표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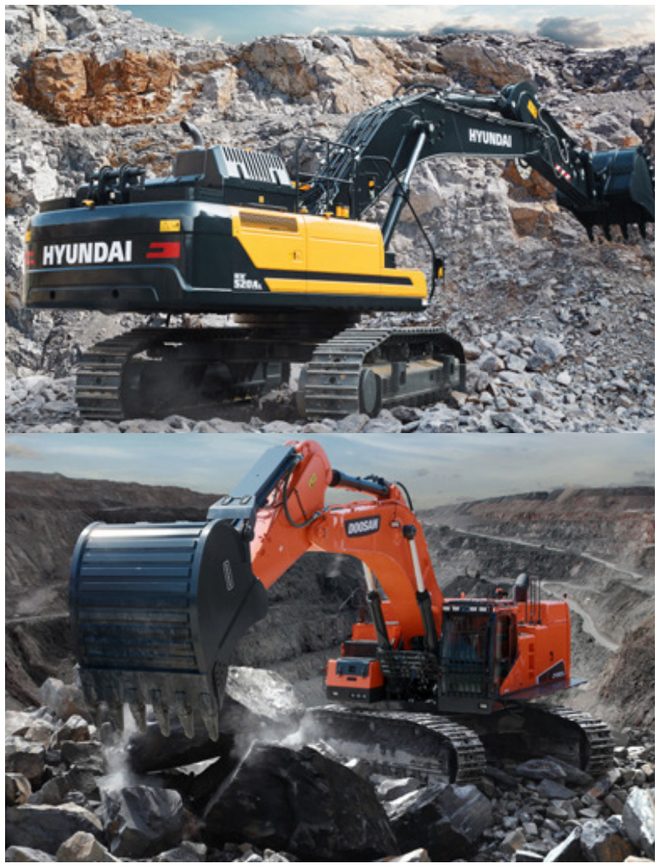
현대에너지솔루션은 지난 7일 주성엔지니어링과 업무협약(MOU)을 체결, 초고효율 태양광 HJT 제품 개발에 나섰다. HJT는 단결정 실리콘 전·후면에 비정질(非晶質) 실리콘을 코팅한 구조로, 광전환 시 표면 에너지 손실을 최소화해 효율을 극대화하는 장점을 갖고 있다. 현대에너지솔루션은 이번 HJT 제품 개발로 기존 제품 대비 셀 효율은 2% 이상, 모듈 효율은 23% 이상으로 각각 높이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현대에너지솔루션은 HJT와 미래 태양광 기술인 '탠덤'(Tandem)과의 연계 개발도 중장기 계획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탠덤은 상용 실리콘 태양광의 셀 효율 한계인 30%가 넘는 미래형 초고효율 태양전지를 말한다.

건설기계 부문, ‘글로벌 Top 5’ 달성 위해 시너지 극대화

건설기계부문 3사(현대제뉴인, 현대건설기계, 현대두산인프라코어)에게 2022년은 시너지의 기틀을 다지는 중요한 해다. 목표로 내세운 ‘2025년 글로벌 Top 5’ 달성을 위해 영업, 품질, 기술 등 전 부문에서 시너지 극대화 추진계획을 세우고, 실천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현대건설기계와 현대두산인프라코어는 국가별 시장 분석을 통한 경쟁력 강화에 힘을 쏟는다. 올해는 중국시장 성장이 더딜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북미, 유럽 등의 선진시장과 점차 점유율을 높이고 있는 신흥시장에 주력할 계획이다. 중국시장의 경우, 중대형 굴착기에 대한 판매 비중을 높여 수익성을 극대화하고, 중국에서 생산한 제품을 신흥시장 등에 수출함으로써 판매량을 유지할 예정이다. 또 미국 바이든 대통령의 대규모 인프라 투자 계획 발표로 올해 성장이 예상되는 북미 지역의 경우, 대형 메가 딜러 확보를 위한 투자를 집행하고 불도저 등 지역 특성에 맞는 신제품을 출시함으로써 판매량 증대에 적극 나선다.

시너지 극대화를 위한 노력도 진행한다. 상반기 중 현대건설기계와 현대두산인프라코어가 상호 교차판매를 실시하기로 했다. 교차판매 예상 모델은 15개이며, 양사가 서로 보유하고 있지 않은 라인업에 대해 ODM형태로 공급받아 각 사 브랜드를 달고 시장에 선보이게 된다.



▲현대건설기계(위)와 현대두산인프라코어(아래)의 굴착기 제품

교차판매를 통해 라인업을 강화함으로써, 해당 지역에 각 사 브랜드 이미지를 높이고 매출도 증가시키는 효과를 얻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어 올해 안에 현대두산인프라코어가 생산한 엔진을 현대건설기계에 탑재한 제품도 선보일 것으로 예상된다.

오는 10월에는 양사가 세계 건설기계 박람회에 참가, 미래 기술을 선보인다. 세계 3대 건설기계 박람회 중 하나인 ‘BAUMA 2022’가 오는 10월 독일 뮌헨에서 열린다. 현대건설기계는 이번 박람회에 친환경 연료인 수소를 활용한 수소 굴착기와 원격으로 굴착기를 조정할 수 있는 체험형 모델인 ‘시뮬레이터’를 전시한다. 현대두산인프라코어 역시 사이트클라우드 체험형 ‘인터렉티브’ 게임을 전시한다. 지난 1월 ‘CES 2022’에서 선보여 관람객들의 호응을 이끌어냈던 바로 그 게임이다. 현대두산인프라코어는 이 밖에도 무인 굴착기, 무인 덤프트럭 등의 목업 모델도 전시할 예정이다.

▲CES 2022에서 선보인 사이트클라우드 체험형 인터렉티브 게임

로봇 부문, 혁신제품으로 고객층 확대

현대로보틱스는 식음료의 배달, 퇴식 등을 수행하는 서빙 로봇, 물건을 객실로 배달하는 호텔 서비스 로봇에 이어 올해 방역로봇을 본격적으로 출시하며 모바일 서비스 로봇 라인업을 확대한다. 타사의 방역로봇은 인체에 직접 닿으면 위험한 UV램프를 사용해 방역을 하기 때문에 사람과 함께 일하지 못한다는 단점이 있다. 그러나 현대로보틱스의 로봇은 신체에 접촉되지 않는 바닥면만 UV램프로 방역하고, 인체에 영향이 없는 친환경 기술인 '리얼 벌크 플라즈마(Real Bulk Plasma)'로 공기를 정화한다. 리얼 벌크 플라즈마 기술은 강력한 전하 에너지를 공기 중으로 방출, 1초 이내에 99.9%의 바이러스를 살균할 수 있다. 현대로보틱스는 올해 안에 출시를 목표로 개발을 추진하고 있다. 보스턴컨설팅그룹에 따르면 모바일 서비스 로봇시장은 2020년 100억 달러에서 2030년 1,700억 달러 규모로 성장이 전망되는 잠재력이 큰 시장이다.

산업용로봇 분야 역시 주목할 만하다. 현대로보틱스는 R&D 역량보강을 통해 차세대 혁신제품 출시를 계획하고 있다. '보다 쉽고 간편하게'를 개발 방향으로 삼고, 소형 제어기 개발, 직관적인 티칭 팬던트(로봇 컨트롤러) 구현을 추진하고 있다. 로봇 자동화 시장의 고객층이 대량생산 위주의 대기업에서 다품종 소량생산을 추구하는 중소기업으로까지 확대되면서 보다 지능화·모바일화된 기술이 필요해졌기 때문이다. 현대로보틱스는 앞으로 AI·클라우드 기술을 활용한 지능화 로봇 개발을 중점적으로 추진, 더 넓은 고객층을 확보해 나갈 계획이다.

2022년 현대중공업그룹 주요 일정

상반기

현대오일뱅크
유가증권시장 상장

현대건설기계·현대두산인프라코어
상호 교차판매 실시

현대글로벌서비스
기술서비스 전문 자회사 설립

하반기

현대삼호중공업
17만 4,000㎥급 LNG선 및
91,000㎥급 LPG선 인도

연내

현대로보틱스
방역로봇 신모델 출시

현대글로벌서비스
전기추진제어시스템 국산화 추진

중동의 밤을 더 환하게 밝히다

현대일렉트릭 전력해외영업1부

글 웹진편집실

Editor's Note | 최근 현대일렉트릭이 국내 업체로는 처음으로 오만에 400kV급 초고압 변압기를 수출하며, 전력기기 주력시장인 중동지역에 대한 기대감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번 웹진 피플 섹션에서는 중동 및 유럽 지역의 전력기자재 영업을 담당하고 있는 전력해외영업1부를 만나보았습니다.

"영업 최전선에서
새로운 기회를
끊임 없이 발굴하고
회사와 고객이
윈윈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강성수 책임매니저

안녕하세요. 현대일렉트릭 전력해외영업1부를 맡고 있는 강성수 책임매니저입니다.

전력해외영업1부는 초고압 변압기, 차단기 등 전력 기자재의 중동·유럽 지역 영업을 담당하는 부서입니다. 입찰 대응, 견적가 제시, 구매 협상, 계약 조건 검토, 계약 체결, 수금과 같은 주요 영업 활동뿐만 아니라, 프로젝트의 전반적인 관리 및 분쟁 조율, A/S에 이르기까지 고객과 가장 가까운 곳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우리 부서는 중동·유럽 지역 국가들의 전력청, 건설회사들을 상대로 당사 제품의 우수성을 홍보함과 동시에, 공개 입찰에 참가하고, 고객과 계약 협상을 벌이기도 합니다. 특히, 사우디아라비아를 선봉으로 쿠웨이트, 바레인, 오만, 아랍에미레이트의 주요 프로젝트들을 수주하며 중동 지역에서 주목할만한 성과를 거두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선진 경쟁사의 안방이라 할 수 있는 유럽 시장에서의 점유율 확대를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협상의 기본은 고객의 요구를 정확히 파악하기

국가별 전력망은 발전→송전→배전→소비의 단계로 구성됩니다. 현대일렉트릭은 이와 같은 전력망 구성에 필요한 전기전자기기를 제작하여 공급하고 있습니다. 전기전자기기 제품은 전력 공급 단계에 따라 송전 단계(고압, 통상 50kV 이상)까지 적용되는 전력변압기, 고압차단기 등 전력기기와 배전 단계(1kV~50kV 중압, 1kV 미만 저압)에서 적용되는 배전반, 중저압차단기 등 배전기기, 그리고 소비단계에서 전기에너지를 이용, 운동에너지를 발생시키는 전동기 등 회전기기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이중 우리 부서가 중점적으로 영업활동을 하고 있는 제품은 전력변압기와 고압차단기 입니다.

전력기기 영업의 첫 단계는 고객사의 니즈를 사전에 파악하는 것입니다. 국가별 전력계통의 특성과 공사 현장별 지리적, 기후적 특성에 따라 고객의 요구 사양이 매우 다양하기에 상황에 맞는 영업전략이 필요합니다. 때문에 문의 접수 단계에서부터 고객의 요구 사양을 정확히 파악하고 기술적인 사양 점검을 해나가는 과정이 매우 중요합니다. 이 과정을 잘 넘기더라도 고객이 요구하는 금액 수준과 회사의 이익률을 최대한 확보할 수 있는 금액 수준과의 차이를 좁혀 나가기 위한 협상이 이어집니다. 수금 조건, 보증 기간, 납기 등의 계약 조건에 대해 합의를 도출해 내야 하는 것은 물론입니다.

프로젝트 수주 후 수행 단계에서도 다음 프로젝트를 위해 고객과 신뢰 관계를 계속 쌓아 나가야 하기 때문에, 고객의 불만이 발생할 때마다 영업 부서가 전면에 서는 경우가 많습니다. 즉, 계약을 위한 준비부터 공사의 마무리까지 우수한 협상능력은 영업 조직이 갖춰야 할 필수조건이라 할 수 있습니다. 때문에 부서원 한 사람 한 사람의 협상 역량은 물론이고, 이를 뒷받침 해줄 수 있는 부서의 보고 문화와 분위기가 매우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 부서는 이러한 면에서 장점을 가지고 있으며, 이를 통해 최선의 협상 결과를 도출해 내고 있다고 자부합니다. 또한, 부서원의 절반 이상이 해외 주재원 경험을 가지고 있어, 그 경험을 업무에 적용할 수 있다는 점도 큰 장점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진심을 담아 다가갈 때, 고객이 먼저 알아준다

영업인에게 쉬운 수주는 없습니다. 모든 프로젝트마다 영업 부원들의 치밀한 고민과 열정 어린 노력이 수반됩니다. 전력해외영업1부가 그동안 수주에 성공했던 프로젝트들도 그랬습니다. 그중에서도 가장 기억에 남는 프로젝트를 꼽으라면, 중동 국가들 가운데서도 기술 수준이 높기로 유명한 두바이 전력청 프로젝트를 수주한 일입니다. 어렵게 입찰자격 사전심사 절차를 통과하여 후보군에 들어가긴 하였지만, 시장에서 우리 회사 제품에 대한 신뢰도 아직 형성되지 않아 수주를 장담할 수 없었던 상황이었습니다.

우리는 정공법으로 승부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제품에 대한 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해서는 진심을 다해 우리 제품의 장점을 알리는 수밖에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부서원들은 입찰 단계에서부터 두바이 전력청 담당자들을 한 명 한 명 직접 만나 설득했습니다. 상대가 원하는 조건도 꼼꼼하게 듣고 조율해 나갔습니다. 처음에는 큰 관심을 보이지 않았던 담당자들이 하나둘씩 우리의 노력과 열정을 알아주기 시작했고, 점점 우리 제품에 관심을 보였습니다. 힘들었던 만큼 노력의 결실은 크게 다가왔습니다. 우리는 이 프로젝트를 통해 한 분기에 약 4,000만 달러 규모를 수주하며 깜짝 실적을 기록할 수 있었습니다. 그때의 경험은 고객을 대하는 마음가짐을 다시 돌아보게 하는 계기가 되었으며, 동시에 고객도 우리가 노력하는 만큼 알아준다는 믿음을 심어줬습니다.

현재 두바이에 있는 23개의 400kV급 변전소 중 2개 변전소에는 우리 회사의 변압기 총 6대(400Kv, 500MVA급)가 설치되어 365일 두바이의 불을 밝히고 있습니다. 두바이는 기후와 관광산업에 특화된 산업구조 때문에 전기의 중요성이 그 어느 곳보다도 중요한 곳입니다. 두바이뿐만이 아니

라 우리의 일상도 전기 없이는 유지할 수 없을 것입니다. 이렇게 전기가 사람들의 삶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전력 영업을 하는 우리도 자연스럽게 소명의식을 갖게 됩니다. 좋은 품질의 제품을 필요한 곳에 공급해서 가치 있게 쓰이게 하고 싶다는 마음이 바로 그것입니다. 물론 이런 마음을 이루기 위해서는 영업에서 생산까지 구성원 모두의 노력이 필요할 것입니다. 우리 전력해외영업1부도 영업 최전선에서 새로운 기회를 끊임없이 발굴하는 한편, 회사와 고객이 윈윈 할 수 있는 협상 역량을 축적해 나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현대일렉트릭 전력해외영업1부에 물어봤습니다!

첫 협상부터 계약까지 얼마나 걸리나요?

보통 짧게는 한두 달, 길게는 5~6개월까지 소요되곤 합니다. 기간은 프로젝트의 긴박성, 발주처와 EPC(Engineering, Procurement, Construction) 수행사 사이의 계약 등에 영향을 받습니다.

계약 및 납품 후 프로젝트 관리는 어떻게 진행되나요?

보증기간 내에 들어 있는 제품에 대해서는 고객 관리부에서 A/S 대응을 하고 있습니다. 보증기간이 지난 제품이나, 계약상 우리의 공급 범위 밖으로 넘어가는 건들에 대해서는 영업에서 개입하여 추가 금액을 받기 위한 협의를 하거나, 분쟁을 조율하는 협상을 합니다.

현지 생산 제품을 우대하는 나라에서는 어떤 영업전략을 펼치나요?

현지 엔지니어를 채용하고 각종 유지·보수 서비스에 공을 들이는 방법으로 이를 극복해 나가고 있습니다. 실제로 사우디 전력청의 경우 전력기자재를 발주할 때 현지화 정도에 따라 입찰 참여 기회를 차등 부여하고 있습니다. 현대일렉트릭은 현지인 채용 비중을 80% 이상으로 유지하는 등 현지화 전략 강화로 입찰 참여 기회를 늘리려 합니다.

계약 협상은 주로 해외에서 이뤄지나요?

코로나19 발생 전에는 해외 출장을 정말 많이 다녔습니다. 아무래도 고객을 직접 만나서 협의하는 것이 협상에 진전을 이끌어 내는데 있어 이점이 더 많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최근에는 주로 화상 회의 툴을 이용하여 협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중동과 유럽의 지리적 또는 기후적 특성에 따라 영업에 차이가 있나요?

기후에 따라 선호하는 제품군이 다르다는 차이가 있습니다. 중동 지역은 고온의 모래 바람을 견뎌야 하는 기후 조건 때문에 외부 노출도가 높은 공기절연 개폐 차단기(AIS)보다는 외함으로 주요 기자재를 보호하고 공기 노출도가 적은 가스절연 개폐 차단기(GIS)를 선호하는 편입니다.

전력해외영업1부에서 일하기 위해 필요한 역량은 무엇인가요?

영어 소통 능력은 기본이라고 할 수 있고, 무역 관련 실무 지식이 있으면 도움이 됩니다. 그 외에도 공학적 배경지식을 가지고 있으면 제품에 대한 이해가 좀 더 수월할 수는 있겠으나, 실무를 하면서도 충분히 배울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룹사 주요 소식

현대중공업지주

2021년 연간 실적 발표

현대중공업지주가 2021년 연결기준 매출 28조 1,587억 원, 영업이익 1조 854억 원을 기록했다고 지난 7일 밝혔다. 유가 상승으로 인한 정유부문의 매출 증가와 글로벌 인프라 투자 확대에 따른 건설기계부문의 호실적을 바탕으로 매출은 2020년 대비 48.9% 늘었고, 영업이익은 통상임금 판결 관련 충당금 설정에도 불구하고 창사 이래 최대 실적을 달성했다. 특히 정유부문인 현대오일뱅크는 유가 상승에 따른 재고 효과 확대와 석유제품 수요 회복에 힘입어 매출 20조 6,065억 원, 영업이익 1조 1,424억 원을 기록했다. 건설기계부문의 현대건설기계는 출범 이후 최대인 3조 5,520억 원의 매출과 1,818억 원의 영업이익을 달성했으며, 현대두산인프라코어는 지난해 8월 그룹 편입 이후 매출 1조 6,782억 원, 영업이익 373억 원의 실적을 기록했다. 한국조선해양은 건조 물량이 증가함에 따라 2020년 대비 4% 증가한 15조 4,934억 원의 매출을 기록했으나, 통상임금 판결 등 영향으로 1조 3,848억 원의 영업손실을 기록했다.

한국조선해양

화재·폭발 없는 배터리로 전기추진선 개발 나서

한국조선해양이 화재와 폭발 위험이 전혀 없는 배터리를 활용한 차세대 전기추진선 개발에 나선다. 한국조선해양은 지난 1월 27일 스탠다드에너지사와 '바나듐이온 배터리 기반 선박용 ESS 솔루션 개발'에 대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을 통해 양사는 바나듐이온 배터리 기반 ESS 솔루션을 개발하고, 해상 실증 및 선급 인증, 차세대 전기추진선 개발까지 상호 협력하기로 했다. 한국조선해양은 선박에 최적화된 ESS를 설계해 적용하고, 스탠다드에너지는 바나듐이온 배터리를 공급한다. 바나듐이온 배터리는 물이 주성분인 전해액을 사용해 화재 및 폭발 위험을 원천적으로 제거할 수 있다. 현재 선박에 주로 적용되는 리튬이온 배터리는 소형화에 용이하지만 휘발성이 높은 전해액으로 화재 및 폭발 위험에 쉽게 노출될 수 있다. 한국조선해양은 내년 상반기까지 바나듐이온 배터리 기반 선박용 MW급 ESS솔루션을 개발하고, 차세대 전기추진선 및 전력운송선의 기본 설계를 완료한다는 방침이다.

현대중공업

7년 만에 생산기술직 채용 나서

현대중공업이 조선업 시황 회복에 힘입어 생산기술직 공채에 나섰다. 생산기술직 공개 채용은 2015년 모집 이후 약 7년 만으로, 올해 선박 건조물량 증가에 대비해 차세대 우수 기술인력을 확보하기 위한 것이다. 현대중공업은 2월 27일까지 그룹 인재채용 홈페이지를 통해 취부·용접, 배관, 기계, 전기 등 4개 직종에 걸쳐 생산기술직 직원을 모집하며, 현대중공업그룹의 사내 협력사에서 3년 이상 재직한 직원이 대상이다. 현대중공업은 조선업 장기 불황으로 물량 부족에 시달리며 지난 2015년 이후 생산기술직 공채를 진행할 수 없었던 환경이었다. 하지만 현대중공업이 지난해 선박 74척, 해양플랜트 3기 등 약 147억 달러를 수주, 연간 목표의 166%를 달성하며 올해부터 일감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공채를 재개하게 됐다. 한편, 현대미포조선도 오는 27일까지 그룹 인재채용 홈페이지를 통해 선각용접, 선각취부, 배관, 전기, 기계 등 5개 직종에 걸쳐 8년 만에 '생산기술직 공개 채용'을 진행하고 있다.

현대제뉴인

신입사원 대상 CEO 간담회 개최

현대제뉴인이 건설기계 3사의 시너지 극대화를 위해 소통 경영에 나서고 있다. 현대제뉴인은 지난 1월 26일 건설기계 3사 첫 통합 채용으로 선발된 대졸 신입사원 90여 명을 대상으로 현대제뉴인 조영철 사장이 온라인으로 대화를 나누는 'CEO connect'를 실시했다. 'CEO connect'는 지난해 12월 CEO가 건설기계 3사 임직원들과 소통을 하기 위해 만든 채널명으로, 이번 신입사원과의 대화를 포함해 총 4차례 실시됐다. 조영철 사장은 이날 신입사원들에게 자신을 소개하고, 사전에 신입사원들로부터 받은 질문 100여 개에 대해 대답하는 시간을 가졌다. 질문은 회사의 사업전략 및 미래 비전에서부터 신입사원이 가져야 할 덕목 등 다양하게 이뤄졌다. 특히, 조영철 사장은 사업 전략 및 비전에 대한 답을 하며 '기술'을 강조했다. 조 사장은 "머지않은 미래에 무인화, 자동화는 반드시 갖춰야 할 필수 기술"이라며, "무인 굴착기 등 상용화를 앞둔 기술을 보유하고 있으며, 관련 투자를 아끼지 않을 계획"이라고 밝혔다.

현대오일뱅크

美 대니머와 바이오 플라스틱 협력 강화

현대오일뱅크가 지난 1월 26일 미국 대니머 사이언티픽과 바이오 플라스틱 분야 사업 협력을 위한 양해각서를 체결했다. 비대면으로 진행한 이 날 체결식에는 현대오일뱅크 강달호 부회장과 대니머 사이언티픽 스티븐 크로스크리 대표가 참석했다. 바이오 플라스틱은 미생물에 의해 쉽게 분해되는 생분해 플라스틱과 식물성 바이오매스를 원료로 만드는 플라스틱을 총칭하는 개념이다. 이번 협약으로 양사는 생분해 플라스틱 소재인 PHA(폴리히드록시알카노에이트)의 연구개발, 마케팅, 제조 등 분야에서 협력을 강화한다. 구체적으로 양사는 PHA를 적용한 신규 고부가 활용처를 개발하고, 아시아권 수요에 공동 대응하는 것은 물론 생산설비 공동 투자까지 다양한 방안을 검토한다. 현대오일뱅크 관계자는 “재활용이 어려운 폐플라스틱의 소각, 매립 등에 따른 생태계 파괴가 심각함에도 플라스틱 사용량은 늘고 있다”며, “기존 플라스틱을 바이오 플라스틱으로 대체해 환경 오염을 줄일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현대일렉트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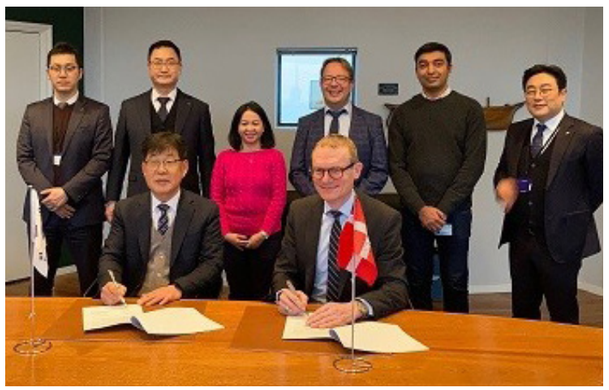
전력기기 강소기업 ‘플라스포’ 인수

현대일렉트릭이 전력변환장치 전문 기업을 인수하며 친환경 기술 경쟁력 강화에 속도를 내고 있다. 현대일렉트릭은 지난 4일 플라스포의 지분 61.8%를 228억 7,000만 원에 인수한다고 밝혔다. 현대일렉트릭은 기존 주주가 보유한 구주 53.8%를 인수하는 한편, 제3자 배정 유상증자를 통해 추가 지분을 취득함으로써 플라스포의 경영권을 확보할 예정이다. 지난 2001년 설립된 플라스포는 신재생에너지용 전력변환장치를 비롯해 태양광 발전 및 에너지 관리 솔루션 사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로, 태양광과 풍력, 연료전지 등 다양한 신재생에너지를 활용한 친환경 발전 사업 분야에서 뛰어난 기술력을 보유하고 있다. 현대일렉트릭은 플라스포의 전력변환장치와 연계한 독자적인 ESS 개발을 통해 사업 경쟁력을 강화하겠다는 계획이다. 아울러 현대일렉트릭은 지능형 에너지 솔루션인 인티그릭(INTEGRICT)에 플라스포의 신재생에너지 발전 기술 노하우를 결합해 에너지솔루션 분야에서도 시너지를 창출해낼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현대글로벌서비스

자체개발 EPL시스템 승인 획득

현대글로벌서비스는 최근 선박용 엔진 기술사인 덴마크 만 에너지솔루션으로부터 자체 개발한 원격제어 엔진출력제한(EPL, Engine Power Limitation) 시스템에 대해 적합성 승인을 획득했다고 지난 9일 밝혔다. 현대글로벌서비스는 엔진 기술사와 지난해 10월부터 해당 시스템의 안정성 및 적합성에 대한 평가를 진행해왔다. 지난해에는 한국선급의 적합성 인증을 획득했다. 현대글로벌서비스의 EPL시스템은 엔진이 위치한 기관실에서 직접 조작해야 하는 기존 EPL과 달리, 조타실에서 원격으로 조정할 수 있는 것이 특징이다. 현대글로벌서비스 관계자는 "이번 승인은 엔진 기술사가 타 기업 제품의 적합성을 인정해준 최초 사례"라며, "EPL시스템의 안정성을 선급과 엔진 기술사로부터 공식적으로 검증 받은 만큼, 선사들의 선택 폭을 넓혀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현대에너지솔루션

초고효율 태양광 제품 개발 나서

현대에너지솔루션은 주성엔지니어링과 '초고효율 태양광 HJT(Hetero-Junction Technology, 이종접합 기술) 제품 개발 관련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지난 8일 밝혔다. 이번 협약으로 양사는 대면적(M10급) HJT 셀 및 모듈의 시제품 개발, 신뢰성 검증, 양산을 위한 제조 공정 구축 및 생산기술 교류 등에 협력한다. 현대에너지솔루션은 15년간 쌓아온 고효율 셀 생산 기술력을 바탕으로 모듈화 공정을 개발하고, 주성엔지니어링은 핵심 공정의 품질 강화와 셀 대형화 및 장비 개발을 담당한다. 현대에너지솔루션은 이번 신제품 개발로 기존 제품 대비 셀 효율은 2% 이상, 모듈 효율은 현 21%에서 23% 이상으로 높일 계획이다. HJT는 단결정 실리콘 전, 후면에 비정질(非晶質) 실리콘을 코팅한 구조로, 광전환시 표면 에너지 손실을 최소화해 효율을 극대화시키는 장점이 있다.

서울아산병원

민간병원 첫 감염관리센터 개소

아산사회복지재단 서울아산병원은 지난 8일 감염병 전문 독립 건물인 감염관리센터(Center for Infection Control, CIC)의 개소식을 진행했다. 이날 개소식에는 정몽준 아산재단 이사장, 박성욱 아산의료원장, 박승일 서울아산병원장 등이 참석했다. 감염관리센터는 감염병 및 감염병 의심 환자를 응급실과 외래 내원 단계부터 분리하고 검사, 입원, 수술 등 진료 전 과정에서 감염 확산 위험을 차단할 수 있도록 설계된 국내 민간병원 최초 감염병 전문 독립 건물이다. 감염관리센터의 모든 시설에는 내부 공기가 밖으로 나가지 못하도록 음압 시스템이 갖춰져 있으며, 하나의 독립 건물에 외래, 응급실, 병동, 중환자실, CT 검사실 등이 모두 포함돼 별도로 운영된다. 서울아산병원은 감염관리센터에서 오미크론으로 인한 코로나19 환자의 급증 상황에 적극 대응한다는 계획이다.

주목할 만한 이달의 역사

현대중공업 PPS(이동식 발전설비) 쿠바 첫 출하

2006.2

글 웹진편집실
공동기획 현대중공업 사내방송국 HHBS

Editor's Note | 2006년 2월 24일, 현대중공업 대형엔진조립2공장에서는 쿠바로부터 수주한 디젤 발전설비의 첫 번째 출하식이 있었습니다. 이날 1항차 출하를 시작으로, 현대중공업은 이른바 쿠바의 '에너지 혁명'에 크게 기여하게 됩니다. 이달에는 쿠바 지폐에 현대중공업의 제품이 도안된 이유와 현대중공업 이동식 발전설비의 글로벌 활약상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쿠바에 설치된 현대중공업 PPS의 모습

▲쿠바 720MW 발전공사의 첫 출하식

‘어두운 쿠바에 빛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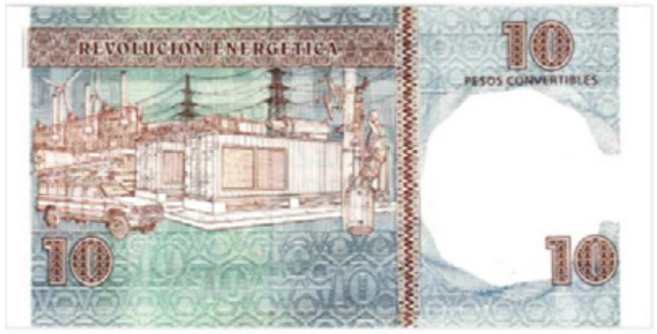
현대중공업 이동식 발전설비 첫 출항

현대중공업이 2006년 2월 24일 주요 경영진을 비롯한 공사 관계자 1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쿠바 720MW 발전공사의 첫 출하식을 가졌다. 이날 쿠바로 떠난 발전설비는 전체 344기 중 6기다. 현대중공업은 앞서 지난 2005년 9월과 12월 쿠바전력청으로부터 약 4억 6,000만 달러 규모의 720MW급 디젤 발전설비 공사를 수주한 바 있었다. 이 공사는 현대중공업이 독자 개발한 ‘힘센엔진(HiMSEN)’이 탑재된 1,700KW급 컨테이너형 이동식 발전설비(Packaged Power Station, PPS)와 2,500KW급 육상용 발전기 등 총 344기의 발전설비를 쿠바 전 지역에 공급하는 프로젝트였다. 수주금액이 당시 우리나라의 대(對)쿠바 연간 수출액인 1억 5,000만 달러의 3배가 넘고, 발전 규모가 쿠바 전체 전력 생산량의 3분의 1에 해당하는 초대형 공사였던 만큼 양국의 관심도 뜨거웠다. 당시 쿠바 국가평의회 의장이었던 피델 카스트로가 두 차례에 나눠 이뤄진 계약식에 모두 참여해 화제가 되기도 했다.

당시 쿠바는 허리케인 등 자연 재난으로 전력 수급에 어려움을 겪고 있었다. 밤이 되면 빛을 찾아보기 힘들 정도였다. 현대중공업의 발전설비는 곧 쿠바의 전력난 해소의 일등공신이 됐다.

쿠바 지폐에 새겨진 현대중공업 이동식 발전설비

2007년 쿠바 정부가 발행한 새 화폐에 대한민국 기업의 제품이 실렸다. 바로 현대중공업이 만든 PPS였다. 쿠바 중앙은행은 현대중공업의 발전설비를 통해 자국의 전기 수급이 원활해지기를 기원하며, 통용량이 가장 많은 10페소짜리 지폐 뒷면에 ‘에너지 혁명(Revolucion Energetica)’라는 문구와 함께 PPS의 모습을 새겨 넣었다. 지폐에는 보통 그 나라를 상징하는 인물이나 물건이 그려지는 것이 일반적이기 때문에 이 사건은 국내외 언론의 큰 관심을 끌었다.



▲현대중공업의 PPS가 그려진 쿠바 10페소 지폐

PPS는 엔진을 포함한 각종 발전설비를 40피트 컨테이너 안에 담은 소규모 패키지형 발전소다. 1기당 동시에 수천 가구가 사용할 수 있는 양의 전력을 생산할 수 있다. 이 설비는 공장형이 아닌 박스형이기 때문에 설치와 이동이 간편하고, 발전을 위한 추가적인 건물이 필요 없어 특히 경제적 면에서 경쟁력이 뛰어났다. 또한, 단기간 사용을 위해 설치하는 기존 패키지형 발전설비와 달리 연속 운전이 가능할 뿐 아니라, 경유 대신 중유(重油)를 사용할 수 있어 연료 효율도 높다. 현대중공업은 쿠바에서만 2005년부터 2008년까지 여섯 차례에 걸쳐 총 564기(총 발전용량 1,250MW)의 PPS를 약 7억 5,000만 달러에 수주했으며, 2015년까지 쿠바 전역 32개소에 설치했다.

세계로 뻗어 나간 현대중공업의 엔진 기술력

이후 현대중공업이 만든 PPS는 발전·송전 시설이 취약한 지역의 건설 현장이나 호텔, 공장 등 소규모 발전, 가뭄이 잦아 수력발전이 불가능한 지역, 건·우기가 뚜렷한 국가들의 상시 발전용으로 각광을 받았다. 특히 현대중공업은 자체기술로 개발한 중속엔진인 ‘힘센엔진’을 PPS에 적용, 이전까지 주기관으로 사용되던 고속엔진의 짧은 수명과 높은 운영비 문제를 크게 개선해 상품성을 더욱 높일 수 있었다. 쿠바 수주 이후 현대중공업은 중남미 지역에서 멕시코 42MW급 발전설비에 이어, 엘살바도르와 도미니카공화국에 각각 14MW 및 7MW급 PPS를 잇달아 수주하는 데 성공했다. 아울러, 2011년 3월 대지진 발생 후 덮친 쓰나미로 일본 후쿠시마 원자력 발전소의 가동이 중단되자, 현대중공업은 전력난을 겪고 있는 도쿄 인근의 전력공급을 위해 자체 제작한 PPS 발전설비를 급파했다. 이외에도 지난 2012년에는 유네스코 지정 세계자연유산이자 살아있는 자연사 박물관으로 불리는 남미 에콰도르 갈라파고스에 PPS 2기를 무상으로 지원하기도 했다. 현대중공업은 지금까지 브라질, 칠레, 에콰도르 등 27개국에 총 1,126기의 발전설비를 수출하며, 중남미를 비롯한 전력 부족 국가의 발전 사업 선도기업으로 확고하게 자리매김했다.

글로벌 1위 조선기업인 현대중공업그룹의 선박용 엔진은 수출량과 점유율에서 모두 세계 최정상에 올라 있다. 선박뿐 아니라 전력이 필요한 세계 곳곳에서 빛을 밝혀 나갈 현대중공업 엔진의 앞날이 기대된다. Ⓗ

미래 인재와 함께 그려본 우리 그룹의 ESG경영

현대중공업그룹 제1기 ESG인턴십 프로그램 성료

글 한국조선해양 ESG전략팀

우리 그룹의 첫 ESG인턴십이 최근 성공적으로 마무리됐다. 이 인턴십 프로그램은 ESG경영에 관심을 갖고 있는 대학생들에게 현장의 생생한 경험을 제공하는 동시에 우수한 ESG 인재를 양성하고, 더불어 우리 그룹의 ESG경영 활동을 적극적으로 알리기 위해 만들어졌다.

우리 그룹은 지난해 10월 25일부터 열흘여 간 전국의 대학교 재·휴학생 및 졸업생을 대상으로 제1기 ESG인턴십 참여자를 모집했으며, 서류전형과 면접을 거쳐 총 여덟 명을 인턴사원으로 최종 선발했다.

선발된 인턴사원들은 12월 마지막 주부터 올해 2월 첫째 주까지 총 6주에 걸쳐 우리 그룹의 ESG경영 활동을 알아보고, 이를 홍보하기 위한 자료를 만드는 과제를 수행했다. 이 과정에서 한국조선해양, 현대중공업, 현대글로벌서비스, 현대건설기계, 현대두산인프라코어, 현대오일뱅크의 ESG 담당자들이 인턴사원들의 멘토로 활동하며 과제 수행을 도와 인턴십 프로그램의 의미를 더했다.

인턴십 프로그램이 막바지로 접어들던 지난 2월 3일, 인턴사원들은 그동안 수행한 과제를 그룹사 ESG 담당자들과 공유하는 최종 발표회를 가졌다. 2명씩 4개 조로 나누어 준비한 조별 과제와 각자의 관심 분야에 따라 선정한 개인 과제의 결과물은 카드뉴스와 제안서 등의 형태로 완성되어 선보여졌다. 짧은 준비 기간에도 불구하고 충실하고 신선한 아이디어가 돋보이는 결과물들이 많았다.

현대중공업 ESG전략팀 문종현 책임은 “인턴사원들의 발표를 들으며 메모를 3장이나 했다”며 “신선한 아이디어들을 우리 회사에 맞게 적용할 수 있는 방법을 찾겠다”고 말하기도 했다. 그중에서도 그룹 에너지 사업 부문 ESG 경영활동 홍보 자료인 ‘현대오일뱅크의 블루수소 이야기: 수소문 끝에 찾은 수소 맛집 현대오일뱅크’, 현대중공업그룹 ESG경영 활동 제안인 ‘블루카본 프로젝트: UAE 맹그로브 숲 가꾸기’ 등의 아이디어가 좋은 평가를 받았다. 인턴사원들이 만든 최종 결과물은 추후 현대중공업그룹 ESG 홈페이지에 게재, 현대중공업그룹 ESG경영 활동 홍보에 활용될 계획이다.

여덟 명의 인턴사원들은 인턴십 기간 중 현대중공업 그룹의 여러 사업장을 방문하여 각 사의 ESG경영 활동을 이해하는 시간도 가졌다. 1월 첫째 주에는 울산을 방문, 현대중공업 ESG전략팀, 선체설계부, 선행도장부와 만나 현대중공업 각 부서가 ESG경영을 위해 어떠한 노력을 기울이는지를 알아보았다. 이어 현대글로벌서비스 디지털관제센터, 현대오일뱅크 대산공장을 방문해 우리 그룹의 사업과 ESG경영 활동을 깊이 이해하는 시간을 가졌다.

또한, 인턴십 마지막 날에는 그룹 최고ESG경영책임자인 가삼현 부회장과의 간담회가 마련됐다. 이 자리에서 인턴사원들은 직접 가삼현 부회장을 인터뷰하며 우리 그룹의 ESG경영에 대한 궁금증을 해소했다. 행사 마무리와 함께 진행된 수료식에서 가삼현 그룹 최고ESG경영책임자는 “인턴사원들이 우리 회사의 ESG경영을 잘 이해하는 소중한 경험이 되었기를 바란다”며 수료증과 함께 따뜻한 격려를 전했다.

ESG인턴이 그룹 최고ESG경영책임자에게 물어봤습니다!

Q1

'그룹 최고ESG경영책임자'라는 직책이 생소하게 느껴지는데, 어떤 업무를 주로 하시는지 궁금합니다.

우리나라에서 ESG경영이 주목받기 시작한 것은 최근이지만 우리 그룹은 이미 ESG 관련 활동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룹 최고ESG경영책임자'는 이러한 활동을 더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 조직을 만들고 ESG경영의 방향을 설정하는 역할을 합니다. 그룹 전체의 ESG경영 방향이 설정되었다면, 각 사가 세부적으로 실천할 수 있도록 조율하고 돕는 일을 합니다.

Q2

현대중공업그룹에 ESG경영이 기업 경영 차원에서 새로운 사업 기회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시는지 궁금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ESG경영에 소요되는 비용을 '손해'라고 인식하지만 저는 ESG경영이 투자이고, 이 투자가 우리에게 새로운 기회가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ESG경영에서 화두가 되고 있는 기후변화 대응을 예로 들면,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온실가스 배출 저감이 엄청난 비용을 유발한다는 관점뿐만 아니라 새로운 비즈니스 창출 가능성이라는 측면을 함께 봐야 합니다. 기후 변화에 대응하는 새로운 기술을 개발하는 것이 우리의 새로운 비즈니스가 되고, 이를 통해 더 큰 가치를 창출할 수 있을 것입니다.

Q3

올해 가장 힘쓰고자 하는 ESG 분야나 활동이 있다면 어떤 것인지 알고 싶습니다.

첫째로는 현대중공업그룹의 구성원에게 ESG경영을 알리고, 모든 구성원이 ESG를 생활화할 수 있도록 돕는 것입니다. 설계, 생산, 구매 등 현대중공업그룹의 모든 구성원이 하고 있는 일이 ESG경영의 어떤 가치에 부합하는지를 함께 찾아내고, 이를 공개하고 홍보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둘째로는 ESG경영 활동을 통해 만들어내는 가치를 측정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아직은 추상적이지만 가치를 측정하는 기준을 정립하고 체계화해, 궁극적으로는 회사에 이익과 연계되도록 만들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현대중공업그룹 ESG 인턴십, 해보니 어땠나요?

김도협 인턴사원

저는 자산기획팀에서 ESG경영의 필요성, 평가 기관 및 대응 방법과 같은 ESG 업무를 배웠습니다. 인턴십 프로그램이 형식적인 경우가 많다고 들었는데, 이번 인턴십 프로그램은 인턴들이 주체가 되어 실무를 경험하는 좋은 기회였습니다.

박수빈 인턴사원

ESG경영 관련 다양한 업무를 하면서 새로운 경험을 쌓고, 특별한 에너지로 하루하루를 충전할 수 있었습니다. 활동 기간 동안 애정을 가지고 임했던 만큼 앞으로도 현대중공업그룹의 ESG경영을 위한 발걸음을 계속 지켜보고 응원하겠습니다.

도원석 인턴사원

한국조선해양에 소속되어 사원증을 태깅하고, 내 자리에 앉아 근무를 하는 것 자체가 행복했던 6주였습니다. 이번 인턴 경험이 취업에 도움이 되는 것뿐만 아니라 세계의 흐름에 발맞춰 함께 성장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신지원 인턴사원

ESG경영을 배우고, 비슷한 관심사를 가진 분들과 과제를 수행하다 보니 6주가 금방 지나간 것 같습니다. 인턴십 프로그램을 끝마치니 ESG가 매우 친숙하게 느껴집니다. 이러한 기회가 자주 만들어져 많은 사람들이 ESG에 대해 고민하는 날이 왔으면 합니다.

조미란 인턴사원

다른 데서는 들을 수 없는 깊이 있고 다양한 ESG강연과, 울산의 조선소를 견학하며 직접 본 골리앗크레인과 대형선박들은 두고두고 기억에 선명히 남을 것 같습니다. 귀중한 경험을 할 수 있는 감사한 시간이었습니다.

김지용 인턴사원

ESG경영에 대한 지식을 쌓고 이를 제가 가진 능력과 접목해보면서 제 삶의 방향성을 생각해 볼 수 있었습니다. 무엇보다 같은 분야에 관심이 있는 인턴들과 교류하면서 유연하게 사고하고 문제를 창의적으로 해결해나갈 수 있었던 점이 좋았습니다.

문수빈 인턴사원

개념으로만 접하던 ESG를 직접 경험할 수 있는 흔치 않은 좋은 기회였습니다. 앞으로 나아가기 위한 자양분을 만들 수 있는 시간이었고, 너무 즐거웠습니다!

류현승 인턴사원

이번 인턴십 프로그램을 통해 크게 두 가지를 배웠습니다. 먼저 ESG경영에 대한 실무를 경험하며 ESG 분야를 한층 더 깊게 알 수 있었습니다. 둘째로는 다른 인턴사원 및 멘토분들과 소통하며 실제 현장에서 커뮤니케이션하는 방법을 배울 수 있었습니다. H

STORY

Trend

Health

Culture

Story +

Hstagram

Quiz

토종 OTT들의 반격…
볼거리 더 풍성해지는 안방극장

글 김윤수 | 조선비즈 기자

세계적인 온라인 동영상 서비스(OTT[1]) 넷플릭스(Netflix)에 맞서 토종 OTT들이 약진하고 있다. 유료 가입자를 모으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하는 인기 작품, 이른바 '킬러 콘텐츠'를 적극적으로 발굴해 선보인 덕이다.

모바일 애플리케이션 빅데이터 분석 솔루션 모바일인덱스에 따르면 넷플릭스는 지난 12월 월간 활성 이용자 수(MAU·한 달 동안 1번 이상 앱을 이용한 사람 수) 1,247만 8,960명을 기록하며 한국 OTT 시장 1위를 지켰다. 그러나 토종 OTT들의 추격도 매섭다. 넷플릭스에 이어 2~3위를 차지하고 있는 웨이브(wavve)와 티빙(Tving)은 지난 한 해 동안 MAU가 크게 늘었다. 아직 격차가 크지만 2위 웨이브는 지난해 1월 419만 명에서 12월 474만 명으로 13%, 티빙은 같은 기간 264만 명에서 417만 명으로 58% 증가했다. 특히 티빙의 경우 넷플릭스(26%)보다도 높은 성장률을 보였다. 순위권 밖이었던 쿠팡플레이는 590%라는 두드러진 성장률을 기록했다. 쿠팡플레이의 MAU는 지난해 1월 52만 명에서 12월 359만 명으로 뛰어, 단숨에 티빙을 잇는 4위 OTT로 자리매김했다.

올해는 넷플릭스의 영향력이 더 감소하고, 그 빈틈을 노리는 후발주자들의 경쟁은 더 치열해질 것으로 보인다. 현대차증권에 따르면 OTT 시장의 경쟁이 심화되며 매출 기준 지난해 60%에 달했던 넷플릭스의 한국 시장 점유율은 올해 50% 수준으로 떨어질 전망이다. 세 토종 OTT뿐 아니라 KT가 '국내 최고 OTT'를 목표로 지난해 독립 출범한 '시즌'도 올해 오리지널(자체 제작) 콘텐츠로 승부수를 띄운다. 디즈니플러스, 애플TV플러스 등 해외 OTT도 한국 이용자를 겨냥한 콘텐츠를 준비하고 있다.

이와 같은 경쟁 덕분에 이용자들의 선택 폭은 더 넓어졌다. 다양한 플랫폼을 비교해 각자 취향에 맞는 콘텐츠가 있는 곳을 선택하고 또 언제든지 다른 플랫폼으로 갈아탈 수도 있다. OTT 서비스 신규 가입을 고려하고 있는 독자들의 선택에 참고가 될 수 있도록 OTT별 킬러 콘텐츠, 올해 나올 기대작, 플랫폼별 특징을 소개해 보겠다.

---

[1] OTT(Over the Top): 개방된 인터넷을 통하여 방송 프로그램, 영화 등 미디어 콘텐츠를 제공하는 서비스. 초기에는 셋톱 박스(top)를 통해 케이블 또는 위성 방송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의미했지만 현재는 인터넷 기반의 동영상 서비스 모두를 포괄하는 의미로 쓰인다.

지상파 드라마·예능 보유 웨이브… 첫 오리지널 영화에도 도전

웨이브는 KBS, MBC, SBS 등 지상파 방송 3사와 이동통신사 SK텔레콤이 합작해 만든 OTT다. 지난해 티빙, 쿠팡플레이에 비해 킬러 콘텐츠의 활약이 두드러지진 않았지만 지상파의 드라마, 예능, 뉴스 등 꾸준한 시청률이 나오는 콘텐츠들을 독점 공급받을 수 있다는 강점이 있다. 미국 드라마 『왕좌의 게임』 시리즈로 유명한 HBO를 포함해 NBC유니버설, CBS, MGM 등 해외 방송사와 제휴해 일부 콘텐츠를 독점 공급받고 있기도 하다. 이렇게 국내외 방송 채널로부터 받는 콘텐츠가 34만 편에 달한다.

웨이브의 지난해 킬러 콘텐츠는 SBS 드라마 '펜트하우스' 시리즈가 있다. 인기에 힘입어 지상파 드라마로는 이례적으로 시즌제를 도입, 2020년부터 3개 시즌이 방영됐다. 올해 들어선 국세청 조사관들의 통쾌한 활약상을 그린 MBC 드라마 '트레이서'가 지난달 방영돼 시청률 10%를 넘겼고 웨이브의 신규 유료 가입자가 시청한 콘텐츠 1위에 올랐다. 오는 18일에는 시즌2도 공개될 예정이다.

올해에는 지상파를 벗어나 오리지널 영화에도 도전한다. 배우 주지훈·박성웅 주연의 범죄 오락물 『젠틀맨』, 조진웅·김희애 주연의 『데드맨』 등 20편 이상의 오리지널 작품이 준비 중이다. 이를 위해 웨이브는 지난해부터 2025년까지 콘텐츠 제작에 1조 원 투자 계획을 수립하기도 했다.

'웹툰 원작' '이효리 예능'으로 승부수 던진 티빙

티빙은 유료방송 채널 tvN, 엠넷, 투니버스 등을 거느린 CJ ENM의 자회사다. 지난해 킬러 콘텐츠로는 『환승연애』와 『술꾼도시여자들』이 있다. 『환승연애』는 이별한 커플들이 한 공간에 모여 살면서 지난 사랑을 되짚고 새로운 사랑을 찾아 나가는 리얼리티 예능이다. 지난해 6월 방영 직후 티빙의 MAU를 9%나 끌어올린 3분기 최대 인기작이었다. 뒤이어 4분기 흥행을 책임진 콘텐츠는 드라마 『술꾼도시여자들』이다. 카카오 웹툰 『술꾼 도시처녀들』을 원작으로 만들어진 이 드라마는 하루 끝의 술 한잔이 인생의 신념인 세 여자의 일상을 그렸다. 이선빈, 한선화, 정은지가 출연했으며, 최근 시즌2 제작이 확정됐다.

앞으로의 행보도 기대를 모으고 있다. 티빙은 지난해부터 2023년까지 4,000억 원을 콘텐츠 제작에 투자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티빙에 콘텐츠를 수급하는 CJ ENM은 네이버와 협력해 인기 웹툰을 드라마로 만드는 작업을 올해 본격적으로 시작했다. 지난달 메디컬 코미디 『내과 박원장』을 시작으로 『유미의 세포들』 시즌2, 『방과 후 전쟁활동 등이 줄줄이 방영 준비되고 있다. 『내과 박원장』은 배우 이서진의 첫 코믹 연기 작품으로, 웹툰 연재와 동시에 드라마화가 확정될 만큼 흥행 기대를 받고 있다. 티빙은 또 넷플릭스의 유일한 약점인 예능을 파고들어, 『놀면 뭐하니』의 김태호 PD가 만들고 이효리가 출연하는 『서울체크인』을 지난달 29일 공개했다. 『서울체크인』은 '서울에서 이효리는 어디서 자고, 누구를 만나고, 무엇을 할까'라는 호기심에서 출발한 리얼리티 프로그램이다. 공개 당일부터 티빙 전체 콘텐츠 중 유료 가입기여자수 1위를 기록하며 화제성을 입증하고 있다.

▲김태호 PD가 만들고 이효리가 출연해 화제가 된 티빙 오리지널 시리즈 『서울체크인 』

SNL 성공 신화 쓴 쿠팡플레이, 올해도 대박 이어갈까

토종 OTT의 다크호스로 떠오른 쿠팡플레이는 저렴한 요금이 가장 큰 장점이다. 경쟁사의 반값에 불과한 월 4,990원을 내고 쿠팡 무료배송 등 혜택을 주는 '와우 멤버십'에 가입하면 쿠팡플레이를 함께 즐길 수 있다. 글로벌 쇼핑 공룡 아마존이 전 세계 2억 명 회원을 모은 유료 멤버십 '아마존 프라임'과 OTT '아마존 프라임 비디오'를 벤치마킹한 것이다.

그동안 이렇다 할 킬러 콘텐츠가 없었던 쿠팡플레이를 키운 1등 공신은 『SNL 코리아』 다. 이 프로그램이 방영된 지난해 9월 쿠팡플레이의 MAU는 처음으로 200만 명을 넘었다. 인기 코너 『인턴기자』 를 앞세워 방영 초기 인기몰이에 성공했고 현재 대선 국면에선 대선 후보를 포함한 유력 정치인의 패러디와 인터뷰를 통해 '정치 예능'으로 발전했다.

▲쿠팡플레이의 초기 인기몰이를 견인한 코너 『인턴기자』

쿠팡플레이는 올해 제2, 제3의 『SNL 코리아』 탄생을 노리고 있다. 배우 수지가 주연을 맡아 리플리 증후군처럼 다른 사람의 삶을 살고자 하는 한 여자의 이야기를 그린 드라마 『안나』 , 올해 카타르 월드컵에 맞춰 한국 축구 국가대표팀의 도전기를 그린 다큐멘터리 『로드 투 카타르』 등 다양한 장르를 시도한다.

점유율 1위 넷플릭스의 만만찮은 라인업… 디즈니·애플도 가세

지난해 한국에서만 5,500억 원, 올해에는 그 이상을 콘텐츠 제작에 투자할 넷플릭스의 준비도 만만치 않다. OTT 콘텐츠 순위 집계 사이트 플릭스 패트롤에 따르면 지난달 28일 공개된 네이버 웹툰 원작 드라마 『지금 우리 학교는』 은 한국을 포함한 37개국에서 넷플릭스 TV쇼 부문 1위에 올라 2주 연속 자리를 지켰다(2월 11일 기준). 『지금 우리 학교는』 은 좀비 바이러스가 퍼진 학교에 고립돼 구조를 기다리던 학생들이 살아남기 위해 사투를 벌이는 이야기다.

남은 2022년 예정된 라인업도 화려하다. 배우 김혜수의 첫 OTT 작품 『소년심판』 , 하정우·황정민 주연의 『수리남』 , 유지태의 한국판 『종이의 집』 , 김희애·문소리의 선거 드라마 『퀸메이커』 , 김남길의 액션 활극 『도적: 칼의 소리』 등 총 25편의 한국 콘텐츠가 올해 넷플릭스에서 방영된다.

다수의 오리지널 콘텐츠를 공개 예정인 후발주자들도 좋은 선택지가 될 수 있다. 디즈니플러스의 『너와 나의 경찰수업』 , 『무빙』 , 『키스 식스 센스』 , 『그리드』 , 『카지노』 , 애플TV플러스의 『파친코』 등이 올해 첫선을 보일 예정이다. 2023년까지 4,000억 원 규모의 투자 계획을 세운 KT 시즌도 『소년비행』 을 포함해 15개 이상의 오리지널 작품을 선보인다. 『소년비행』 은 대마밭을 발견한 18세 소녀 다정과 그 친구들이 잃어버린 평범함을 필사적으로 찾아 나서는 이야기를 그린 '10대 누아르'다. 특히 후발주자들은 신규 가입자들에게 다양한 혜택을 제공하고 있으니 알뜰하게 이용해 보자. H

영양제, 어떻게 먹어야 하나요?

글 정희진 I 울산대학교병원 약제팀 약사
그림 정민영 I 일러스트레이터

작년부터 만성피로에 시달려온 김 선임. 주말을 활용해 부족한 잠을 보충하고, 자기계발 휴가를 써 재충전의 시간도 가져봤지만 도통 회복될 기미가 보이지 않아 걱정이 많았다. 그러다 최근 주변에서 추천받은 종합비타민제를 먹고 효과를 톡톡히 봤다. 이제는 뭐라도 먹으면 좋겠지 싶어 영양제 종류를 늘려 10가지 넘게 복용하고 있다. 하지만 과하게 섭취한 탓일까? 최근 소화가 잘 안 되는 느낌이다. 혹시 영양제의 부작용은 아닌지 덜컥 겁이 난다.

영양소, 효과적으로 섭취하자

식사를 통해 우리 몸에 필요한 영양소를 모두 섭취하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이다. 모든 식사를 영양사가 짠 식단대로만 먹을 수 있다면 걱정할 필요가 없겠지만, 바쁜 현대인들은 영양제 복용을 통해 부족한 영양소를 보충하는 경우가 많다. 그런데 영양제는 누구나 처방전 없이 쉽게 살 수 있고, 약과 달리 몸에 좋은 '음식'이라 여기는 사람이 많아서인지 전문가와 상담하지 않고 복용하는 사람이 대부분이다. 그러나 약을 조제할 때 사람마다 필요한 성분을 필요한 만큼만 써야 원하는 효과를 얻을 수 있는 것처럼, 영양제도 부작용 없이 원하는 효과를 얻고 싶다면 복용 전에 전문가와 상담하는 것이 좋다.

건강기능식품은 인체에 유용한 기능성을 가진 원료나 성분을 사용하여 만든 '식품'이기 때문에, 추천 용량까지 복용하면 대개 안전하다고 여겨진다. 영양제 포장에는 영양소별 '00%'가 표시되는데 이는 하루 영양섭취기준 대비 비율을 의미한다. 영양섭취기준은 과학적 근거에 따라 건강한 사람이 질환을 예방하고 최적의 건강 상태를 유지하는 데 필요한 영양섭취량이다. 여러 가지 영양제를 함께 먹을 때는 특정 영양소를 지나치게 많이 섭취하지 않도록 이 영양섭취기준을 참고할 수 있다.

영양제마다 복용법과 양이 다르다

영양제는 복용 중인 다른 약과 서로 영향을 미칠 수 있고, 사람마다 가지고 있는 질환, 몸 상태에 따라서 필요한 영양도 다르다. 영양제가 약의 효과를 방해하기도 한다. 대표적인 예가 와파린과 비타민K의 관계인데, 와파린은 혈액이 응고되는 걸 막기 위해 먹는 약이지만, 비타민K는 반대로 혈액이 응고하는 것을 돕는 비타민이기 때문이다.

반대로 약이 영양소를 방해하기도 한다. 어떤 약을 오랜 기간 복용하면 특정 영양소가 부족해지는 경우가 여기에 해당된다. 이는 우리 몸이 약을 분해, 흡수, 배출하는 과정에서 영양소를 사용하거나 영양소의 작용을 방해하기 때문에 일어나는 현상이다. 예를 들어 결핵약 중 하나인 이소니아지드는 비타민B6의 효과를 방해해 신경독성을 일으킬 확률이 높아서 아예 비타민B6와 함께 처방한다. 이런 식으로 영양제가 처방받는 약에 포함되기도 하니, 복용 중인 영양제가 있다면 같은 영양소를 중복해 지나치게 많이 섭취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언제, 어떤 음식과 함께 먹는지도 중요하다. 지용성 비타민 A, D, E, K는 기름진 음식과 함께 먹으면 흡수에 도움이 된다. 철분제는 공복에 흡수가 잘 되기는 하지만, 공복 복용 시 속 쓰림 때문에 불편을 호소하는 사람이 많아 식사와 함께 복용하기도 한다. 이렇듯 영양제마다 복용하는 방법과 양이 각기 다르니, 표시된 정보를 잘 보고 전문가에게 도움을 요청해 복용법을 제대로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다.

영양제, 무엇이 궁금한가요?

◇◇◇◇◇◇◇◇

#1

외국 영양제가 더 좋다고 하던데, 사실인가요?

외국 영양제와 우리나라 영양제의 품질에는 차이가 없다. 다만 종합영양제는 일반적으로 현지인의 식단에 맞춰 설계되기 때문에 포함된 성분이나 함량에 차이가 있을 수는 있다. 따라서 한국인의 식습관에 맞춰 설계되는 국내 제품이 한국인에게 좀 더 적합할 수 있다.

#2

영양제를 먹으면 소변 색깔이 노랗게 변하는데 괜찮은 건가요?

흡수하고 남은 수용성 비타민(B2, C)이 소변으로 나오면서 색을 변하게 만든 것이므로 걱정할 필요 없다. 체내에 흡수될 수 있는 영양소의 양에는 한계가 있어 이를 초과하면 소변으로 나오게 된다. 따라서 종합비타민을 먹고 소변 색이 변했다면 수용성 비타민이 충분히 흡수된 것으로 볼 수 있다.

#3

천연비타민이 합성비타민보다 더 좋다고 하던데…

통상 천연 원료 비타민과 합성 비타민의 효능은 함량이 같을 경우 차이가 없다. 비타민을 식품에서 추출하느냐, 아니면 화학적 합성을 통해 만드느냐의 차이일 뿐 같은 화학구조를 가진 동일한 물질이기 때문이다. 천연 비타민이 체내 흡수가 잘 돼 효능이 더 뛰어나다고 하지만 그 근거는 빈약하다고 본다. Ⓗ

요알못들을 위해 K사우가 간다!

글·사진 웹진편집실
레시피 제공 윤기호 | 한국조선해양 경영지원팀

체리브라우니 편

Editor's Note | 우리 그룹의 모든 '요알못(요리를 알지 못하는 사람)'들을 대표해 K사우가 나섰습니다. 올해 컬처 섹션은 임직원들이 보내준 레시피를 K사우가 직접 요리해보고 평가하는 코너로 채워집니다. 발렌타인데이가 있는 2월에는 달콤한 초코와 상큼한 체리의 만남, 체리브라우니를 소개합니다.

오늘의 재료(2인분 기준) | 다크초콜릿 170g, 체리 120g, 달걀 120g, 무염버터 100g, 황설탕 90g, 중력분 80g, 생크림 50g, 코코아 파우더 20g, 키르슈(체리향이 나는 증류주) 5g, 소금 1g

체리브라우니

모든 재료는 계량해 준비한다.

2호 사각틀(16.5x16.5) 또는 원형틀(지름 18cm)에 유산지를 깔아준다.

체리는 반으로 잘라 씨를 제거해 둔다.

다크초콜릿, 실온무염버터를 끓는 물에 중탕해 녹인다.

별도의 볼에 달걀, 소금, 황설탕을 넣고 섞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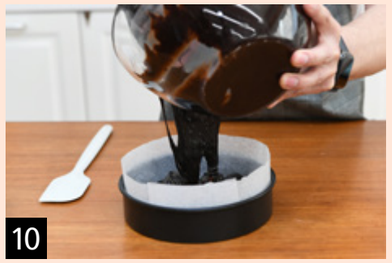
5번에 생크림을 넣고 섞는다.

K사우의 Tip! 키르슈를 넣으면 체리향이 살아나요!

다크초콜릿, 무염버터가 녹으면 조금씩 나눠 넣으며 섞어준다.

채친 중력분, 코코아파우더를 넣어 섞는다.

가루가 적당히 섞이면 체리를 절반 정도 넣고 섞어 반죽을 완성한다.



틀에 완성된 반죽을 붓고 주걱으로 윗면을 평평하게 정리한다.

윗면을 남은 체리로 장식한 뒤 틀을 바닥에 2-3번 쳐 기포를 빼낸다.

160도 오븐에서 35-30분 구운 뒤 식혀서 먹는다.

K사우의 한줄평

맛 ★★★★★

꾸덕, 달콤, 상큼! 고급 과자점 부럽지 않은 최고의 디저트!

난이도 ★★★★★

레시피를 충실히 따라야 성공을 맛 볼 수 있어요.

요알못을 위한 Tip

- 초콜릿과 버터를 작게 잘라 중탕하면, 시간을 절약할 수 있어요.
- 오븐에서 꺼낸 뒤 틀을 바로 제거하면 브라우니가 무너져요. 틀 안에서 충분히 식혀 주세요.

※ **유튜브 〈현대중공업TV〉 채널**에서 K사우가 요리하는 모습을 영상으로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더 보기

Editor's Note | Story +는 사우 여러분의 이야기를 듣고 그와 관련된 재미있는 정보를 모아 함께 읽어보는 코너입니다. 사우들 인생의 소소하지만 특별했던 경험을 들려주세요. 여러분 인생에 영향을 미친 ▭ 는 무엇인가요? 사람, 사건, 사물, 그 어떤 것이라도 좋습니다. 제목과 사연(500자 내외)을 보내주시면 선정된 사우에게 갤럭시 워치4를 드립니다.

보내는 곳 - magazine@hhi.co.kr
(현대중공업그룹사, 협력회사 사우 및 가족 참여 가능)

사우의 글

내 인생의 동반자

글 백재권 | 현대로보틱스 엔지니어링팀

"우리는 한 켤레 신발처럼 일상 속에 갇혀 살지만, 시간은 매 순간 미묘하게 우리를 다른 지점으로 데려다 놓는다." *-나희덕, 예술의 주름들 中 -*

반복되는 일상에 조금은 지쳐갈 무렵, 아내와 '주말여행'이라는 쉬운 듯 쉽지 않았던 계획을 실행에 옮겼다.

모듬전에 동동주가 곁내줬던 지난 10월의 어느 주말 오후를 시작으로, 우윳빛 석화를 배 터지게 먹을 수 있었던 11월 통영을 지나, 12월의 마지막 밤은 과메기에 소주 한잔을 걸친 채 아내 손을 꼭 잡고 포항 앞바다를 거닐었다.

결혼 전 6년의 연애 기간 동안 둘만의 여행이 어디 한두 번이겠냐마는, 부부의 연을 맺고 부모가 된 뒤로 오롯이 서로에게만 집중하는 시간을 갖게 되기까지 꼭 22년이 걸렸다. 언제라도 마음만 먹으면 낼 수 있는 시간이라고 여기며 '조금 더, 조금만 더 상황이 괜찮아지는 날'을 기다린 것이 어느덧 22년이다.

지난해 내가 이룬 성과 중 가장 잘한 일을 꼽으라면, 단연코 우리만의 시간을 갖기 시작한 것이다. 기대 이상으로 행복했고, 행복 이상으로 설레었다. 단둘이 떠나는 아내와의 여행은 발에 잘 익은 한 켤레 신발처럼 부드럽고 편안하게 일상을 벗어나게 해주었다. 연애 시절 함께했던 그 어떤 장거리 여행보다, 지난 석 달 함께한 주말 단거리 여행이 훨씬 더 풍요롭게 느껴졌다.

벌써 다음 여행지는 여수로 정했다. 돌아가신 장인, 장모님과의 추억이 깃들어 있다는 향일암(向日庵)에는 별표도 그려놓았다. 특히 이번 여수 여행에서는 아내의 어린 시절 이야기 속으로 흠뻑 빠져볼 계획이다. 소소하지만 더할 나위 없는 행복을 가져다주는 아내와의 여행이 우리 남은 생의 여백을 가득히 채워주기를!

잡학사전

함께 하면 행복이 배가 되는 '동반자' 이야기

글 웹진편집실

#여행의 기쁨을 두 배로 만드는 동반자

여행 관련 연구에 따르면, 여행 동반자에 대한 우호성과 유사성이 높을수록 여행 만족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한다. 더 즐거운 여행을 떠나고 싶다면, 『떠나고 싶을 때 떠나라』의 저자인 여행 전문 작가 롤프 포츠(Rolf Potts)의 조언에 귀 기울여보자. 동반자와 함께 출발하려면 동반자의 선택에 신중해야 한다. 찡찡대는 사람, 습관적인 염세주의자, 무원칙한 동정주의자, 자의식이 강한 사람, 유행을 좇는 사람은 동반자로 적합하지 않다. 이런 사람들은 여행을 지루한 고행으로 전락시켜 버린다. 현실적이고 열린 가슴을 지닌 사람을 동반자로 택하라. 이는 당신도 꾸준히 키워가야 할 미덕이다.

#깐부의 어원은 '동반자'?

'우린 깐부잖아….' 지난해 국내를 넘어 전 세계를 강타했던 넷플릭스 드라마 '오징어게임'의 대표적인 명대사다. '깐부'는 사실 국립국어원 표준국어대사전에 없는 말이다. 그 어원에 대해서는 여러 설이 있지만, 영어 단어 콤보(Combo)에서 유래됐다는 주장이 깨나 설득력 있게 들린다. 콤보는 '서로 다른 것들이 결합된 것'을 의미하는데, 결합물(Combination), 동반자(Companion)에서의 'Com'과 뿌리를 같이한다. 동반자를 뜻하는 'Companion'의 어원은 '함께(com) 빵(pan)을 먹는 사람'이다. 여기서 비롯된 회사(Company)의 어원 역시 기본적으로 여러 사람이 동행하며 공통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모인 것을 의미한다.

#반려자에서 반려동물까지, 확장되는 동반자

반려자(伴侶者)에서의 반(伴)은 '짝 또는 의지한다'는 뜻을 내포한다. 기존에는 주로 사람에게 적용되는 개념이었지만, 반려동물에 대한 관심이 커지면서 요즘은 일생을 함께할 수 있는 짝으로 동물을 선호하는 사람이 늘었다. 반려동물이란 사람이 정서적으로 의지하며 더불어 살아가는 동물의 총칭으로, 지난 1983년 동물행동학자이자 노벨상 수상자인 콘라드 로렌츠(Konrad Lorenz)의 80세 생일을 기념하기 위해 주최한 심포지엄에서 처음 제안되었다. '애완'이라는 용어가 도구적 관점에서 동물을 바라봤다면, 이후 반려동물은 인간처럼 함께 살아가야 할 존재로 인식하는 계기가 됐다.

#식물도 훌륭한 반려의 존재! 식물을 사랑한 사람들

최근에는 반려식물에 대한 관심도 커지고 있다. 식물은 예로부터 사람의 곁에서 생동감과 아름다움을 선물해주는 좋은 친구가 되어왔다. 우리나라를 비롯한 한자 문화권에서는 사군자(四君子)인 매화, 국화, 대나무, 난을 사랑하고, 이를 그림과 시로 읊은 위인들도 많다. 특히 퇴계 이황 선생의 매화 사랑은 유명하다. 세상을 떠나는 마지막 순간에도 자신이 사랑하고 아낀 매화에게 물을 주라는 말을 남길 정도였다. 오우가(五友歌)로 식물과 자연을 벗으로 노래한 고산 윤선도 선생, 그림과 난의 대가였던 추사 김성희 선생과 흥선대원군 등도 식물에 대해 남다른 애정을 가졌던 위인들이다.

#미래의 반려자는 로봇?

지난달 열린 세계 최대 전자IT전시회 CES 2022에서 AI자율 반려로봇 '마이캣'이 첫선을 보였다. 이 로봇은 카메라와 마이크를 통해 사람의 안면과 음성을 인식해 상대의 감정을 읽을 수 있다. 기존 로봇이 프로그램으로 동작하는데 반해, 마이캣은 자율제어 신경망에 의해 관절을 제어한다. 한편, 아마존 CEO 제프 베이조스는 로봇 제조사 보스턴 다이내믹스의 로봇 개 '스폿'과 산책하는 모습을 공개해 화제를 모았다. 스폿은 CES 2022에서 한층 더 발전한 모습으로 현대자동차그룹 정의선 회장과 함께 연단에 오르기도 했다. 반려동물, 반려식물을 잇는 '반려로봇'의 시대도 머지않아 보인다.

#국가 대 국가로 맺어지는 동반자 관계

둥글게만 보이는 지구에도 국가들 사이의 긴밀한 동반자 관계가 존재한다. 이는 요동치는 국제정세 속에서 서로의 이익을 추구하고 라이벌 국가를 견제하는데 효율적인 역할을 한다. 우리나라가 정식 수교한 나라는 작년 9월 기준 모두 191개국이다. 미국은 포괄적 전략적 동맹관계이며 중국, 러시아, 베트남, 콜롬비아 등은 전략적 협력 동반자 관계에 있다. 이외에도 포괄적 녹색 전략적 동반자 관계인 덴마크, 특별 전략적 동반자 관계인 인도, 인도네시아, 아랍에미리트, 우즈베키스탄 등이 있다. 이들은 모두 지정학적으로 밀접하거나, 우호관계가 각별한 나라들이다. Ⓗ

#Hstagram

나의 짝꿍을 소개합니다

Editor's Note | Hstagram은 매달 주제를 정해 사우 여러분의 일상을 담은 사진을 공유하는 코너입니다. 2월호에는 사우들의 짝꿍과 관련된 사진을 수록하였습니다. 3월호의 주제는 '나의 입사 후 추억'입니다. 사진과 함께 해시태그 키워드 3개를 보내주세요. 선정된 사우에게 갤럭시 버즈 프로(베스트 컷 1명)와 문화상품권(6명)을 드립니다.

보내는 곳 - magazine@hhi.co.kr
(현대중공업그룹사, 협력회사 사우 및 가족 참여 가능)

최성욱 기사 | 현대중공업 의장생산부

#1+1=♡ #따뜻한오후의바닷가
#대왕암캠핑장

전봉기 기사 | 현대중공업 자재운영부

#아들둘 #개구쟁이짝꿍
#1층으로이사가고싶어

정희석 기사 | 현대중공업 플랫폼공사부

#입사후첫짝꿍 #10년째사랑
#이성애자

한다선 사원 | 현대건설기계 Eurasia/ME팀

#칭구칭구 #한국국제건설기계전
#현대두산인프라코어부스에서

홍순욱 기사 | 현대중공업 의장생산부

#동백꽃필무렵 #귀여운짝꿍
#때론앙숙같은

김슬기 기사 | 현대중공업 의장생산부

#코로나시국 #QR체크속짝꿍
#참고로여자임^^

QUIZ

이번 호에 실린 글을 읽고 아래 퀴즈의 정답을 찾아 보내주세요.
정답을 모두 맞히신 분 중 추첨을 통해 상품을 드립니다.
소속 회사, 부서, 성함, 연락처를 반드시 기재해주세요.

보내는 곳 - magazine@hhi.co.kr

기한: 2022년 2월 28일

갤럭시 버즈 프로
(1명)

문화상품권
(10명)

1 최근 선박용 엔진 기술사인 덴마크 만 에너지솔루션으로부터 자체 개발한 원격제어 엔진출력제한(EPL) 시스템에 대해 적합성 승인을 획득한 그룹사는?

① 현대중공업 ② 현대에너지솔루션 ③ 현대글로벌서비스

2 2007년 발행한 지폐에 현대중공업 이동식 발전설비(PPS)를 도안한 국가는?

① 멕시코 ② 쿠바 ③ 에콰도르

3 '환승연애'와 '술꾼도시여자들' 등의 인기 콘텐츠를 보유하고 있는 OTT는?

① 넷플릭스 ② 웨이브 ③ 티빙

1월호 퀴즈 정답 **1.** ② CES **2.** ① 비욘드 트러스트호 **3.** ② 화려한 포장

당첨자

갤럭시 버즈 프로 (1명)

김성기 | 현대제뉴인 전력전자개발팀

문화상품권 (10명)

송윤혁 | 현대중공업 판넬조립부
김명준 | 한국조선해양 자금2팀
김혜광 | 현대에너지솔루션 모듈개발팀
문선현 | 현대중공업MOS 외업설비운영부
박수용 | 현대중공업 ITER공사부
주형준 | 현대중공업 개발설계2부
안재형 | 현대중공업 프로세스기계설계부
백승선 | 현대중공업 자재운영부
이중엽 | 현대오일뱅크 생산조정팀
김광현 | 현대중공업 가공소조립부

현대두산인프라코어

Powered by **Innovation**

세계 최초의
건설현장 무인 관제 솔루션,
우리의 혁신이 만듭니다

세계를 놀라게 한 최초의
건설현장 무인 관제 솔루션 Concept-X
이제 다음 혁신을 향해 움직일 차례입니다
우리의 기술이 전 세계 건설현장에
도움이 되도록 혁신을 멈추지 않겠습니다

현대두산인프라코어

무인·자동화 기술 기반의 건설현장 종합 관제 솔루션 Concept-X
드론으로 지형을 스캐닝하여 측량하고 작업현장의 모든 정보를 디지털화해 계획하여 관리하는 미래 건설현장 무인 관제 솔루션

여러분의 참여를 기다립니다.

매거진 H는 사우들과 함께 만들어가는 그룹 웹진입니다. 읽고 난 소감, 가장 마음에 들었던 기사 혹은 아쉬웠던 점, 소개하고 싶은 재미있는 사연이나 주목할 만한 인물이 있다면 적극 추천해주세요. 보내실 때 소속과 성함을 기재하여 보내주시면 추첨을 통해 소정의 상품을 드립니다.

magazine@hhi.co.kr

HYUNDAI HEAVY INDUSTRIES GROUP
www.hyundai-holdings.co.kr

Copyright©Hyundai Heavy Industries Group All Rights Reserved